

제공일자	2015. 9. 7(월)	담당자	김석영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3775-9115)	연락처	3775-9029
		총 3매	

제목 : 2015년 보험가입률, 전년대비 상승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보험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였음.* 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최근 주요 이슈인 실손의료보험, 노후소득 및 자산관리, 은퇴자산, 주택연금 구매 의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임.

가구당 보험가입률, 전년대비 상승

-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14년과 비교하여 2.2%p 상승한 99.7%를 나타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4%p 상승한 87.2%,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4.1%p 상승한 91.8%를 기록하였음. 전체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2.9%p 상승한 96.7%를 기록하였는데,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률의 경우 전년대비 0.4%p 하락한 반면,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전년대비 5.4%p 상승하였음.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은 건강보험(암, 의료비, 질병보험 등)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가구 및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	생명보험	88.0	87.3	86.3	83.0	85.8	87.2
	손해보험	85.9	91.4	87.2	86.8	87.7	91.8
	전체	96.4	98.0	96.1	96.1	97.5	99.7
개인	생명보험	81.4	78.0	79.3	77.3	79.3	78.9
	손해보험	65.0	71.5	67.9	74.6	74.3	79.7
	전체	92.1	92.5	92.9	94.0	93.8	96.7

주: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포함된 가입률임.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저렴한 보험료’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 28.6%, ‘주변 사람의 권유’ 17.9%, ‘편리한 가입절차’ 17.3% 순으로 나타난다.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비가입되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3.4%,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나, 비가입자 5명 중 약 2명 정도는 향후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5.1%,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가 28.8%, ‘현재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이 25.8% 순으로 나타난다.

노후소득 마련 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9.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4년 조사 결과보다 3.9%p 상승한 것임. 이처럼 본인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이라는 의견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현재 노후 소득 마련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향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50% 미만 수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44.3%로 나타나,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 수준과 현재 상태의 노후 소득 마련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수준은 월 평균 20만 원 미만이라는 의견이 절반 정도(48.4%)를 차지하였음.

노후에도 근로소득 창출 욕구는 큰 것으로 나타나

- ‘은퇴 이후 적합한 소득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창업을 포함한 재취업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이라는 의견도 35.1%로 나타났음. 또한, ‘정년이 연장된다면, 정년 연장으로 논의 중인 연

령인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81.4%를 차지하였음. 이는 노후에도 근로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하려는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난 소득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추가 구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42.1%로 나타났다으며, 추가 구입을 원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적금 또는 저축이 47.2%, 연금 저축이 23.0% 순으로 조사되었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5.5%,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1.8%로 나타났음.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에서는 예상대로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회사 27.9%, 증권회사 20.9% 순으로 조사되었음.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 낮은 수준

- 주택연금 관련 조사에서는 자가 주택 보유자가 전체 응답자의 7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가 16.0%, '노후 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11.5%로 나타났다.

<첨부> :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설명자료

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보험산업 전체 가구 보험가입률은 2014년(97.5%)과 비교하여 2.2%p 상승한 99.7%¹⁾로 나타남.

○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7.2%로, 2014년(85.8%) 대비 1.4%p 상승한 반면, 가입건수는 2014년(4.0건) 대비 0.5건 감소한 3.5건으로 조사됨.

○ 2015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91.8%로 2014년(87.7%) 대비 4.1%p, 가입건수는 가구당 3.4건으로 2014년(3.3건) 대비 0.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당 가입률(%)		97.7	97.4	96.4	98.0	96.1	96.1	97.5	99.7
생명보험	가입률(%)	90.8	89.9	88.0	87.3	86.3	83.0	85.8	87.2
	가입건수(건)	4.1	4.0	4.1	3.8	3.8	3.6	4.0	3.5
손해보험	가입률(%)	86.3	87.4	85.9	91.4	87.2	86.8	87.7	91.8
	가입건수(건)	2.1	2.2	2.5	3.0	2.9	3.1	3.3	3.4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등에 따른 가구당 보험가입률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하여 대부분 상승하였으며, 특히 손해보험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4년(87.7%) 대비 4.1%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4년 대비 10.2%p,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2%p 상승함.

1) 자동차보험이 포함된 가구 가입률이며,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30대(+4.6%p) 연령층, 손해보험은 30대(+4.7%p), 50대(+3.2%p), 60대 이상(+9.0%p)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소득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저소득(+9.6%p), 중소득(+3.4%p), 고소득(+2.6%p)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가입률					96.1	97.5	99.7	83.0	85.8	87.2	86.8	87.7	91.8
거주 지역별	대도시				96.6	97.8	99.6	85.2	87.1	85.5	86.1	86.9	90.6
	중·소도시				96.4	97.1	99.6	81.5	84.6	87.3	89.5	88.8	92.4
	군지역				91.3	97.9	100.0	78.8	85.6	95.8	76.9	85.6	94.8
세대주 연령	30대				96.2	96.5	100.0	78.0	83.1	87.7	90.3	90.5	95.2
	40대				99.3	98.9	99.6	87.8	89.5	90.5	95.5	95.1	96.7
	50대				98.1	98.7	100.0	88.4	88.5	88.7	93.1	91.5	94.7
	60대 이상				90.3	95.4	99.0	75.6	81.2	84.1	67.9	73.9	82.9
가구 소득	저소득				86.9	90.2	98.3	69.9	72.9	75.3	63.0	63.6	73.2
	중소득				98.5	98.7	100.0	83.7	85.8	86.2	92.7	90.9	94.3
	고소득				99.7	99.6	100.0	92.0	91.9	93.0	96.8	95.2	97.8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개인 보험가입률은 96.7%로 2014년 대비 2.9%p 상승하였음.

○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2014년(79.3%) 대비 0.4%p 하락한 78.9%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2014년(74.3%) 대비 5.4%p 상승한 79.7%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개인 보험가입률을 보임.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명보험	78.0	79.3	77.3	79.3	78.9
손해보험	71.5	67.9	74.6	74.3	79.7
전체	92.5	92.9	94.0	93.8	96.7

■ 전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 다만,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여성(83.5%)이 남성(74.2%)보다 9.3%p 높게 나타난 반면,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남성(89.0%)이 여성(70.5%)보다 8.5%p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경향을 보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40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모두 하락함.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가입률		94.0	93.8	96.7	77.3	79.3	78.9	74.6	74.3	79.7
성별	남성	93.5	93.9	97.0	71.4	75.9	74.2	82.7	82.7	89.0
	여성	94.4	93.6	96.4	83.0	82.5	83.5	66.8	66.1	70.5
연령	20대	90.6	84.9	92.4	67.0	69.3	67.2	65.5	55.8	65.2
	30대	96.8	96.7	98.7	81.9	81.2	80.0	85.1	83.7	87.6
	40대	98.1	97.8	100.0	82.1	85.8	86.3	88.4	87.3	89.3
	50대	96.5	97.9	97.9	83.4	85.6	82.2	81.2	81.4	89.3
	60대 이상	87.3	89.9	93.8	70.6	72.5	76.6	50.8	59.7	65.9
직업	화이트칼라	98.1	96.7	98.5	81.4	80.5	85.0	84.5	82.7	86.2
	블루칼라	92.3	90.3	98.0	67.9	77.1	76.3	75.2	71.7	81.6
	자영업	95.7	96.5	96.4	80.2	80.1	74.8	80.4	83.3	84.9
	농/임/어업	94.4	100.0	100.0	85.9	83.3	92.9	63.3	50.0	100.0
	주부	100.0	93.8	96.8	75.0	86.0	84.8	50.0	63.2	70.0
	은퇴자	—	87.5	94.6	—	68.8	69.6	—	53.1	69.6
	무직/기타	74.7	79.6	82.1	50.7	51.0	57.1	50.7	49.0	48.2
학력	중졸 이하	76.8	85.7	88.1	61.6	70.5	75.2	35.2	50.9	53.5
	고졸	95.2	93.9	96.4	78.8	80.0	76.1	75.0	74.2	76.3
	대재 이상	97.0	95.6	98.5	79.6	80.4	82.3	83.8	79.8	87.8
결혼	기혼	94.9	95.8	97.5	79.8	81.4	82.4	76.0	77.3	81.7
여부	미혼	90.1	85.5	93.4	67.0	70.5	65.0	68.7	62.2	71.6
가구 소득	저소득	84.8	86.9	94.5	67.5	68.7	71.1	53.6	56.5	64.7
	중소득	97.0	94.1	97.9	78.8	78.4	78.6	82.2	76.7	82.9
	고소득	96.8	96.5	96.7	82.8	85.2	82.5	79.8	79.7	83.6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7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망보장보험(22.4%)과 저축성보험(19.3%) 순으로 전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질병보장보험과 변액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이 2014년(각각 69.6%, 5.3%) 대비 0.6%p와 1.3%p 상승한 반면, 사망보장보험(-4.4%p), 저축성보험(-6.4%p) 개인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하락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가입률		69.6	70.2	26.8	22.4	25.7	19.3	5.3	6.6
연령	20대	57.8	59.6	19.1	9.1	20.1	8.1	3.0	4.5
	30대	66.9	68.4	31.4	28.0	31.4	21.8	9.2	10.7
	40대	76.9	74.4	33.2	29.8	35.8	30.5	7.5	7.6
	50대	77.1	71.5	30.9	31.0	28.0	23.6	4.7	9.1
	60대 이상	66.7	74.0	17.8	12.8	12.0	10.6	1.6	1.5
직업	화이트칼라	66.2	72.8	33.5	28.4	36.0	24.3	5.9	10.8
	블루칼라	68.2	70.2	21.7	19.2	26.0	14.7	5.0	5.7
	자영업	71.0	66.5	31.7	26.6	22.9	22.7	4.4	4.7
	농/임/어업	83.3	85.7	16.7	21.4	16.7	14.3	0.0	0.0
	주부	78.9	75.6	24.8	18.9	23.1	19.4	7.9	6.9
	은퇴자	62.5	67.9	6.3	8.9	6.3	10.7	0.0	0.0
	무직/기타	42.9	50.0	6.1	7.1	12.2	1.8	0.0	1.8
학력	중졸 이하	65.2	74.3	14.3	8.9	6.3	7.9	0.9	1.0
	고졸	71.3	68.2	27.1	18.1	26.6	17.3	4.8	4.6
	대재 이상	68.5	71.2	29.1	29.0	28.7	23.2	6.9	9.7
결혼	기혼	72.9	73.9	28.1	24.9	26.6	21.3	5.7	7.0
	미혼	56.4	55.6	21.6	12.8	22.0	11.1	3.3	4.9
가구 소득	저소득	61.2	67.2	14.5	8.1	11.7	8.1	0.9	2.1
	중소득	66.7	67.7	27.5	25.2	22.2	20.0	4.9	5.7
	고소득	76.9	73.3	31.7	26.5	36.2	23.6	7.6	9.2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68.5%로 2014년 (60.2%) 대비 8.3%p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6.6%로 2014년(8.3%) 대비 1.7%p 하락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하락함.

○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가구 소득층의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하락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모든 학력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중졸 이하 학력층을 제외한 학력층에서 전년대비 하락함.

<표 6>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4	2015	2014	2015
가입률		60.2	68.5	8.3	6.6
연령	20대	44.7	60.6	10.1	3.0
	30대	69.0	72.0	9.2	8.9
	40대	71.3	79.4	10.4	10.7
	50대	63.6	78.1	7.2	6.2
	60대 이상	49.2	52.4	5.0	3.7
학력	중졸 이하	42.0	47.5	2.7	3.0
	고졸	59.9	64.1	9.7	6.0
	대재 이상	64.8	76.6	11.0	7.8
결혼	기혼	62.7	69.9	8.3	6.9
	미혼	50.2	63.0	8.3	5.3
가구 소득	저소득	43.9	56.6	5.6	3.0
	중소득	62.9	69.8	8.1	7.1
	고소득	64.6	72.6	9.8	7.7

■ 2015년 조사에서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 특히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95% 이상의 압도적

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5% 이하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손해보험 또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2014년(9.1%) 대비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5.3	95.4	96.3	96.3	96.0	95.5	96.4	97.3
직판	3.9	2.0	1.6	2.1	2.6	2.4	1.9	1.6
은행	4.6	3.1	2.5	1.9	1.6	3.1	3.2	1.7

-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보고서 < I. 조사의 개요 > 참고.
 3) 2008, 2009년은 복수응답을 포함하며, 기타 채널은 생략함(이하 동일).

<표 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1.2	92.3	92.6	95.5	92.7	93.2	94.2	94.0
직판	8.0	6.3	7.7	4.7	6.2	8.0	9.1	7.8
은행	2.6	1.4	0.5	0.5	1.1	1.9	1.3	0.3

- 주: 1) 2008년부터 표본추출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함(이하 동일).
 2)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개인 보험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의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3) 2008년 이후는 복수응답 구성비임.
 4)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5)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보장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 종목들이 전년대비 하락함.

- 향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의 비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각 3.7%p, 7.3%p 하락하여 생명보험 62.3%, 손해보험 36.8%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가입 의향을 2014년과 비교한 결과, 저축성보험이 가장 높은 20.7%로 나타났고, 질병보장보험(14.2%), 사망보장보험(7.1%), 변액보험(4.7%)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장기손해보험이 전년대비 0.9%p 상승한 20.5%, 일반손해보험은 1.2%p 하락한 10.1%로 나타남.

<표 9> 보험 상품별 가입 의향 비교

(단위: %, %p)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보장 보험	사망 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의향 없음	장기 손해 보험	일반 손해 보험	의향 없음
2011년	19.8	11.7	20.6	5.9	56.9	29.8	8.8	34.1
2012년	15.2	7.9	17.3	4.6	64.3	20.4	9.3	49.1
2013년	17.9	6.6	19.1	3.5	63.3	22.0	8.0	41.5
2014년	17.3	6.3	18.3	4.7	65.9	19.6	11.3	44.1
2015년	14.2	7.1	20.7	4.7	62.3	20.5	10.1	36.8
증가율	-3.1	0.8	2.4	0.0	-3.7	0.9	-1.2	-7.3

주: 사망보장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이 포함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은 손해보험(97.7%)이 생명보험(92.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자금 마련(18.5%), 저축수단(11.2%), 유산상속 목적(1.7 %)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수단(3.3%), 노후자금 마련(2.3%), 투자수단(0.7%) 순으로 조사됨.

<표 10>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4	2015	2014	2015
위험보장	95.5	92.9	98.5	97.7
노후자금 마련	21.0	18.5	1.2	2.3
목돈마련 저축수단	12.1	11.2	1.6	3.3
자산증식 투자수단	1.8	1.6	0.3	0.7
유산상속 목적	3.8	1.7	0.2	0.1
세제혜택 유리	2.5	0.7	0.9	0.4

■ 생명보험은 보험 종목별로 보험가입 이유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손해보험은 종목과 상관없이 모두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보장보험(96.9%)과 사망보장보험(73.6%)에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저축성보험(51.9%)과 변액보험(43.0%)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11> 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증식	유산상속	세제혜택
생명보험	질병보장보험	96.9	1.9	0.8	0.2	0.1	—
	사망보장보험	73.6	5.6	13.0	2.6	4.1	0.7
	저축성보험	22.1	32.5	51.9	1.7	0.4	0.4
	변액보험	34.2	11.4	43.0	5.1	3.8	6.3
	기타	97.3	2.1	0.7	—	—	—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98.0	0.8	0.2	0.3	—	0.7
	장기손해보험	96.2	3.8	2.6	0.6	0.1	0.2
	일반손해보험	97.5	—	2.5	—	—	—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회사가 대형사라는 응답이 생명보험 73.6%, 손해보험 82.3%로 여전히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1.8%p)와 외국사/직판사(-1.1%p), 공제/기타(-1.1%)의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비율은 전년대비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1.2%p)와 공제/기타(+1.0%p)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대형사(-0.3%p)와 외국사/직판사(-2.4%p)는 하락함.

<표 12> 최근 3년간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단위: %)

선택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대형사	71.5	71.8	72.6	75.8	73.6	79.9	80.3	78.2	82.6	82.3
중·소형사	19.2	15.4	15.7	21.8	21.8	20.6	18.5	20.6	17.5	18.7
외국사/직판사	14.1	15.0	12.3	9.8	8.7	4.9	4.8	5.1	6.0	3.6
공제/기타	6.7	6.2	6.0	5.9	4.8	2.6	2.6	2.7	1.0	2.0

■ 보험회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상품 경쟁력과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 선택의 경우 상품 경쟁력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브랜드 신뢰성(15.6%), 가격 경쟁력(14.3%), 서비스 지원(11.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요인들은 10% 이하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 선택의 경우도 상품 경쟁력(46.9%)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신뢰성(16.6%)과 가격 경쟁력(16.4%)이 뒤를 이음.

<표 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선호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상품 경쟁력	38.7	38.2	48.7	48.9	48.0	37.0	35.6	48.2	45.4	46.9
브랜드 신뢰성	28.6	26.6	18.3	17.2	15.6	28.1	27.8	17.8	18.7	16.6
서비스 지원	10.7	13.1	10.8	10.4	11.0	11.1	10.8	12.2	10.4	12.8
가격 경쟁력	10.0	12.3	14.3	15.1	14.3	10.8	16.7	14.3	17.5	16.4
개인적 관계	5.8	4.3	4.3	4.3	4.2	7.1	4.8	5.3	4.7	2.8
회사규모	3.3	2.3	1.8	2.7	2.7	2.7	1.2	0.8	1.8	1.8
설계사 전문성	0.8	1.2	0.5	0.7	1.4	0.8	1.2	0.4	0.5	1.0
경영 철학	0.4	1.1	0.4	0.3	0.6	0.4	0.5	0.1	—	0.6
과거 거래 경험	0.7	0.6	0.4	0.3	1.2	0.8	0.7	0.6	0.5	0.6
계약 편의성	1.2	0.5	0.5	0.2	1.1	1.3	0.9	0.3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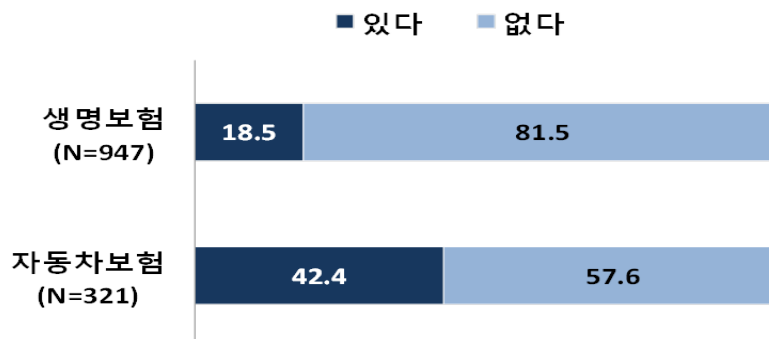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5.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재 가입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가입자의 18.5%,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42.4%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단위: %)



II. 생명·손해보험 공통

1. 실손의료보험

■ 지난 1년 동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형태, 가입 금융 기관 종류, 그리고 가입 채널을 조사하였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유형은 특약형(54.4%)이 단독형(45.6%) 보다 많았으며, 특약형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0대(59.8%), 자영업(58.2%), 고소득(59.0%)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75.3%), 생명보험사(23.7%), 우체국 및 기타 공제(1.1%) 순으로 나타남.

<표 1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전체		(469)	23.7	75.3	1.1
응답자 연령	20대	(87)	23.0	74.7	2.3
	30대	(103)	26.2	72.8	1.0
	40대	(122)	27.9	72.1	0.0
	50대	(98)	19.4	78.6	2.0
	60대 이상	(59)	18.6	81.4	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21.5	77.8	0.6
	블루칼라	(102)	26.5	71.6	2.0
	자영업	(91)	26.4	72.5	1.1
	농/임/어업	(1)	0.0	100.0	0.0
	주부	(91)	23.1	76.9	0.0
	은퇴자	(12)	16.7	83.3	0.0
	무직/기타	(14)	21.4	71.4	7.1
가구 소득	저소득	(55)	18.2	80.0	1.8
	중소득	(179)	21.2	78.2	0.6
	고소득	(234)	26.9	71.8	1.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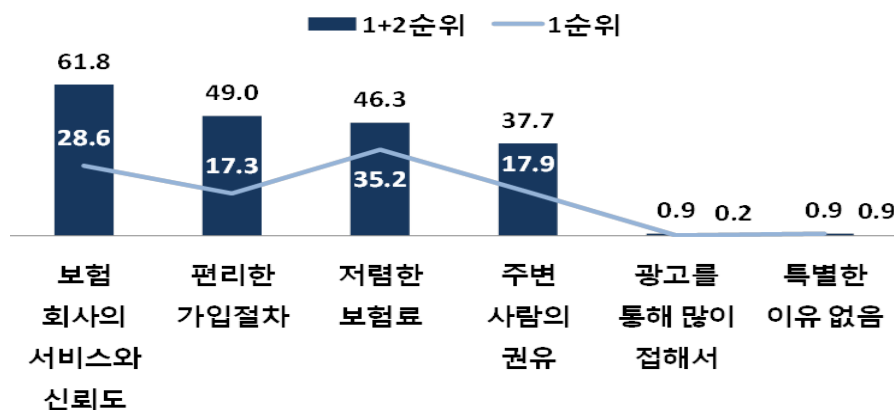
○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면(94.2%)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채널로는 직판(2.3%), 은행(0.6%)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2.8%).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35.2%)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28.6%), 주변 사람의 권유(17.9%), 편리한 가입절차(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저렴한 보험료라는 응답은 40대(41.0%)와 60대 이상(40.7%), 가구 소득이 적을 수록 높아져 저소득(4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사유

(N=469 / 단위: %)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갱신 주기는 3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은 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에 대한 응답은 3년이 43.5%, 5년이 35.2%, 비갱신형이 12.2%, 1년이 9.2%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에 대해서는 90%(41.6%), 80%(31.3%), 100%(10.2%)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모름: 16.8%).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 수준²⁾으로 6만 원~9만 원 미만(34.1%)과 3만 원~6

2) 다른 보장과 함께 판매될 경우 전체 보험료로 응답하였음.

만 원 미만(32.8%)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응답으로는 9만 원 이상 (26.4%), 3만 원 미만(6.6%)의 순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이 6만 원~9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 (4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6만 원 미만	6만 원~ 9만 원 미만	9만 원 이상
전체		(469)	6.6	32.8	34.1	26.4
성별	남성	(229)	10.5	38.0	32.3	19.2
	여성	(240)	10.0	45.0	30.4	14.6
응답자 연령	20대	(87)	12.6	36.8	29.9	20.7
	30대	(103)	3.9	34.0	33.0	29.1
	40대	(122)	4.9	36.1	35.2	23.8
	50대	(98)	6.1	30.6	32.7	30.6
	60대 이상	(59)	6.8	22.0	42.4	28.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11.4	38.0	33.5	17.1
	블루칼라	(102)	12.7	44.1	30.4	12.7
	자영업	(91)	8.8	34.1	36.3	20.9
	농/임/어업	(1)	0.0	0.0	0.0	100.0
	주부	(91)	7.7	53.8	28.6	9.9
	은퇴자	(12)	16.7	33.3	8.3	41.7
	무직/기타	(14)	0.0	42.9	21.4	35.7
가구 소득	저소득	(55)	14.5	38.2	21.8	25.5
	중소득	(179)	7.8	45.8	31.3	15.1
	고소득	(234)	11.1	38.9	33.8	16.2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 금융 기관별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는 4.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우 신속한 보험금 처리서비스 만족도(각각 4.38점, 4.19점)가 다른 서비스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6>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단위: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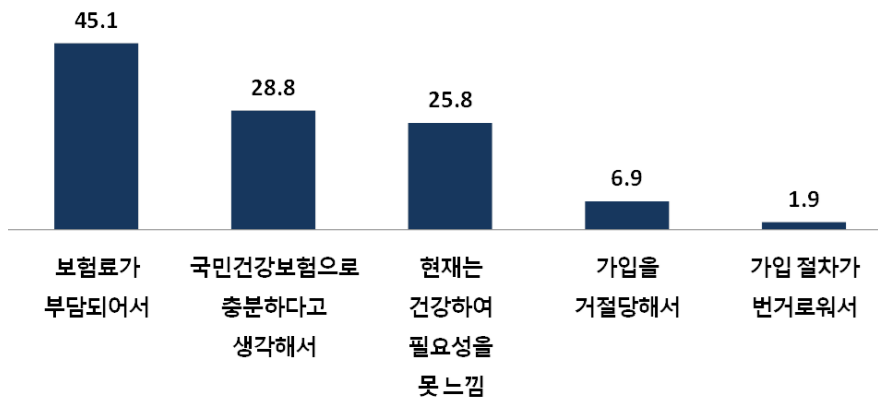
구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4.01	4.03	4.20
청구절차의 간편함	4.08	4.15	5.00
신속한 보험금 처리	4.38	4.19	4.00

주: 우체국 및 기타공제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28.8%),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5.8%), 가입을 거절당해서(6.9%),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1.9%)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그림 3>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N=539 / 단위: %)



2. 정년제

■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년제가 있는 비율은 55.5%였음.

○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는 직장의 비중은 47.5%로 조사됨.

■ 60세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79.1%였으며, 특히 중소득층(85.3%)의 동의 비율이 높았음.

○ 한편,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최소 65세는 되어야 한다’는 비율 (40.0%)이 가장 높았으나, ‘청년실업,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늘여서는 안 된다’(38.8%)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로 높았음.

○ 조기퇴직예상자의 퇴직연령은 평균 48.7세였으며, 이 중 ‘55세 이상 60세 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음.

■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비율은 55.5%였음.

○ 그 채용 방법은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음.

■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62.3%였음.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는 최종보수기준 70%(41.6%)와 80%(38.7%)라는 응답이 많았음.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2.1%였음.

○ 추가 구입 금융상품으로는 적금·저축(47.2%), 연금저축(23.0%) 순임.

○ 추가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49.8%), 자녀 교육 및 결혼비(37.6%) 등임.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 있는 비율은 26.4%로 조사됨.

○ 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음.

○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유인으로는 강한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예, 비과세기준금액 3억 이상(37.0%)).

○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으로 나타남.

3. 빅데이터 관련 보험상품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보험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약 24.8%였음.

○ 가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개인정보유출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63.0%였음.

■ 텔레매틱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운전행태 관련 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약 28.8%였음.

○ 가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개인정보유출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65.7%였음.

4.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는 자가(70.3%), 전세(24.6%), 월세(5.1%) 순으로 나타남.

■ 주택을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던 시대인식도 점차 변화해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향이 없다”는 답변(56.4%)이 “의향이 있다”는 답변(43.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가주택 보유자가 전체 응답자의 7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30% 수준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32.9%,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0.4%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1.8%)와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0%), “노후 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5%) 등으로 나타남.

5. 노후소득, 자산관리(은퇴, 노후생활) 등의 준비

■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49.1%, 보통 41.6%, 긍정 9.3%로 나타남.

○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 (41.3%)이 가장 높았음.

○ 그다음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19.0%),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11.2%),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10.5%), 국민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서(7.8%),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저축액 규모가 매월 11~20만 원 이하인 응답자가 27%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후대비 저축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저축액 규모가 매월 11~20만 원 이하의 응답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밖에 매월 10만 원 이하(21.4%), 매월 21~30만 원 이하(20.5%), 매월 41~50만 원 이하(12.2%), 매월 51만 원 이상(10.7%), 매월 31~40만 원 이하(8.1%)의 순으로 나타남.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 필요 정도에 대해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35.1%), 자식의 경제적 지원(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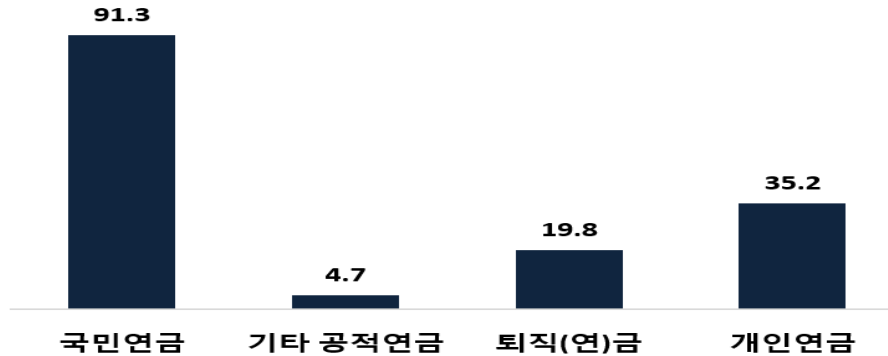
■ 가구의 연금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91.3%로 가장 높고, 기타 공적연금이 4.7%, 퇴직(연)금이 19.8%, 개인연금 가입률은 35.2%로 나타남.

○ 국민연금 가입률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저학력, 1인가구, 기혼 여성가구에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년(38.1%)대비 약 3%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연령층의 가입 정책과 연금세제 변화 등에 의한 고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니즈 감소,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 가입자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연금제도별 가입률

(N=1,200 / 단위: %)



주: 본 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과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에서 가입률은 연금상품 가입률의 상대적 값만 의미가 있음.

7.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5.5%,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1.8%로 나타남.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은 20대와 30대(약 19%), 화이트칼라(19.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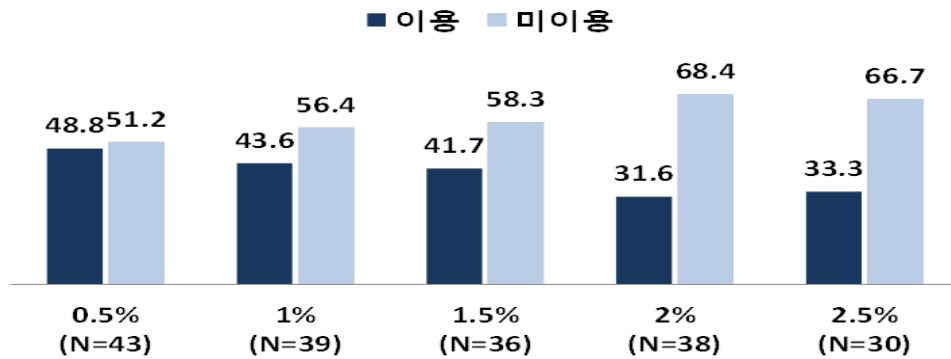
■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음.

○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서비스 수수료 수준이 납입액의 0.5% 수준이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서비스 수수료 수준이 0.5% 수준이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2.5%인 경우 이용 의향은 26.7%였음.

<그림 5>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단위: %)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은행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회사(27.9%), 증권회사(20.9%)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N=129 / 단위: %)

